

시민단체 PR 사례 분석 : 생리대 안전성 논란을 둘러싼 쟁점 분석

고혜미(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위원)
방송작가/PD, 이대 박사과정(에코미디어 전공)

1. 들어가며

2017년 9월23일 현재,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을 비롯한 유해물질이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위해성이 있는가의 여부가 아직 ‘논란’중에 있다. 생리대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식약처는 시판되고 있는 896개의 생리대를 수거하여 유해물질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분석방법이 달라 결과 역시 다를 것으로 예측¹⁾되고 있어 더 큰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리대가 처음 시판되기 시작한 것은 1971년²⁾으로 알려져 있지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품목으로 분류’되어 1995년까지는 광고조차 금지³⁾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지난 8월부터 9월에 이르기까지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생리대 뉴스’는 이례적이다. 사건(事件)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주목을 받을 만한 뜻밖의 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번 생리대에서 발암물질과 생식독성물질을 비롯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은 ‘안전성 논란’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생리대 유해물질 사건’으로 명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는 두 가지 목표로 작성되었다. 첫 번째는 PR학문분야에서 <생리대 유해물질 사건>을 다루는데 필요한 자료 제공과 두 번째 시민단체의 활동 강화와 확대를 위한 PR전문가들의 결합 및 협력 방안 요청이다. 이를 위해 생리대 유해물질 사건의 주체인 ‘여성환경연대’와 우리나라의 시민사회단체에 대해 소개하고 <생리대 유해물질 사건>과 관련된 그간의 진행 경위와 주요쟁점에 대해 짚어 보고자 한다.

2. 시민단체와 <여성환경연대>

시민단체는 누구인가?

생리대의 유해물질 분석을 의뢰하고 그 검출 결과를 발표한 시민단체는 1999년 6월 설립된 ‘여성환경연대’이다.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는 경제, 노동, 인권, 종교, 환경, 교육, 소비자, 여성, 평화, 정보화 등의 다양한 사회 영역에 걸쳐 활동하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얻는 신뢰도는 2001년 국정홍보처가 우리나라 사회 각 집단에 대해 실시한 신뢰도 조사에서 65%⁴⁾의 지지를 받은 이래 각종 국내외 신뢰도 지수 조사에서 정부, 언론 종교단체, 법원, 국회 등을 모두 제치고 줄곧 압도적인 1위⁵⁾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에델만(Edelman)의 전 세계 28개국의 신뢰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7년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 주체인 기업, 정부, 미디어, NGO의 종합신뢰도는 세계 평균인 47%에 크게 못 미치는 38%를 기록하면서 28개국 가운데 23위를 차지해 불신국가로 분류된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회 주체 중 비정부기구(NGO)의 신뢰도는 56%로 기업, 정부, 미디어에 비해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1) 시사위크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96417>

2)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8071513593498972>

3)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2203&idxno=6053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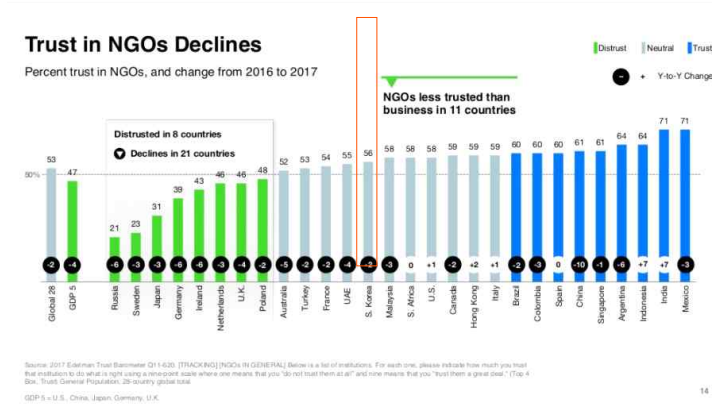
4) 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PRINT/23921.html>

5) 리얼미터

<http://www.realmeter.net/2014/08/%EC%A3%BC%EC%9A%94%EA%B8%B0%EA%B4%80-%EC%8B%A0%EB%A2%B0%EB%8F%84-%EA%B2%80%EC%B0%B0-%EB%98%90%EB%8B%A4%EC%8B%9C-%EC%B5%9C%ED%95%98%EC%9C%84/>

있다.

[표1_에델만사의 NGO신뢰도]



이러한 결과의 뿌리는 시민단체가 활발하게 생겨나기 시작한 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90년대 초·중반 경실련(1989), 환경정의(6)1992년), 환경운동연합(1993), 참여연대(1994) 등 지금도 건재한 굵직한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탄생하였고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의 412개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총선시민연대’⁷⁾를 결성해 낙천·낙선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전 국민적인 관심을 얻으며 사람들의 가슴 속에 ‘시민의 힘’을 자각하게 한 리더로 시민단체가 인식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는 정부를 비롯한 기업과 사회의 감시자를 자처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시민들의 권리를 대변하여 사회현안을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왔다. 이번 생리대 유해물질 사건 역시 시민(특히 여성)들이 수십 년간 문제를 제기해 온 것에 대해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해 온 정부와 기업에 대해 시민단체로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또는 시민단체로서는 일상적인)을 통해 펼친 캠페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2천 년대 이후 시민의 뜻을 대변해 구체적 대안을 내놓는 제도 개혁 분야에서 시민단체의 ‘새로운 콘텐츠’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나 환경보건시민센터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대응과 한국소비자연맹의 ‘살충제 달걀’ 그리고 여성환경연대의 <생리대 유해물질 사건>이야말로 민의를 대변하고 사안에 대해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생리대 유해물질 사건>의 의미와 과학기술 패러다임의 전환

특히 <생리대 유해물질 사건>은 시민단체가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는 화학물질의 피해사례를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과감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이에 시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공론장으로 끌어냈다는 것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생리대와 관련된 시민행동의 최근 사례로는 2016년 7월 한 누리꾼이 제안해 시작된 ‘생리대를 붙이자8)’ 캠페인을 들 수 있다. 국내 생리대 가격이 외국에 비해 1.5배에서 2배가량 높다는 것에 대해 생리대가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임을 주장하며 가격의 부당함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여성환경연대가 생리대에서 유해물질을 검출한 이번 사건은 생리대 문제가 ‘가격’에서 ‘안전’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리대 붙이기’ 캠페인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리대를 바라본 것이라면 <생리대 유해물질 사건>은 오롯이 여성의 관점이 도드라진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수집하고 기록해 주지 않는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 왔다. ‘여성의 몸’이 느끼는 증상을 사소하고 개인적이라고 치부하고 학문적인 체계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 이 땅의 페미니즘의 역사의 한 자락에 존재한다. 이제 여성들은 월경을 비롯하여 선택권이 아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여성’으로서의 숙명에 도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울러 ‘소비를 위해

6) 환경정의 <http://eco.or.kr/about/history/>

7)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pspd100/1338984>

8) 서울시여성가족재단 www.seoulwomen.or.kr “생리대,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으로 바라봐야”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과연 안전할까?’라는 물음을 사회구성원 모두의 가슴에 품게 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화학물질을 비롯한 과학기술에 대한 패러다임은 ‘위험하지 않다면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안전하지 않다면 위험한 것’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것은 2005년 유네스코(UNESCO)가 정의한 사전주의원칙⁹⁾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칼 세이건이 ‘현대과학은 10)자기수정체계에 의해 지배 받는다’고 한 바 있다. 과학은 시행착오의 학문이다. ‘이례적인 주장’을 하려면 반드시 11)‘이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위험을 증명하는 일은 어렵고 전문가의 영역이다. 의료사고나 산재사고를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은 ‘위험’을 증명하는 것보다 더욱 더 어렵다. 지금 당장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수십 년 후에 치명적인 결과¹²⁾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다. 이런 이유로 이번 생리대의 안전성 문제는 화학물질의 안전성과 여성건강 안전성이 결합된 문제로 창립 초기부터 에코페미니즘을 실천해 온 ‘여성환경연대’로서는 단체정체성과 부합되는 값진 운동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환경연대’ : 문제제기의 주체

여성환경연대는 1994년 베이징에서 열린 제 4차 세계여성대회에 ‘여성과 환경분과’를 조직하여 참여한 이후 여성환경조직 간담회를 거쳐 1999년 6월 창립한 국내 유일의 여성환경운동 단체¹³⁾로 여성의 관점에서 생태적 대안을 찾고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The image shows two versions of a flyer for the 'Law Cup'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부활과 컵 소재 단일화를 위한 서명에 함께 해주세요!). The flyer includes a cartoon character, the URL bit.ly/law_cup, and a 'WANTED' sign graphic. The text on the flyer reads: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부활과 컵 소재 단일화를 위한 서명에 함께 해주세요!' and 'bit.ly/law_cup'. The 'WANTED' sign graphic says '구합니다 WANTED' and '조사에 참여하실 네일숍 종사자를 모십니다. (서울 시내 네일숍 종사자만 가능, 직접 작업 시 업주 가능)'. The flyer also features a navigation menu with items like '소개', '주요사업', '공지사항', '활동소식', '자료마당', '교육문의', and '후원하기'.

출처 : 여성환경연대 홈페이지 <http://ecofem.or.kr/>

창립이후 첫 공개토론회가 ‘환경호르몬과 모자건강에 관한 공개 토론회’(2000)였는데 환경호르몬과 여성 모자건강을 연결한 것은 다른 시민단체들이 다루지 않는 주제였다. 올해도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네일숍에서의 유해물질과 관련된 조사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환경호르몬 이슈가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기 시작한 것은 1992년 덴마크 교수의 정자 수 감소 연구로 촉발되어 주로 미국과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대응이 시작되었고 국내에서는 1998년 일본의 국립의약품 위생연구소에서 컵라면 용기를 검출 시험 한 결과 전 제품에서 환경호르몬물질이 검출¹⁴⁾된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동일한 시험을 한 결과 같은 결과를 얻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9) 유네스코(UNESCO)는 2005년 과학 기술 지식 윤리위원회 (COMEST)와 함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사전 예방 원칙을 명확하게 정의하였다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3/001395/139578e.pdf>

사전주의원칙은 원인과 결과의 관련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어도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줄 것으로 판단될 때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0) Carl Sagan, Cosmos(New York: Random House, 1980), 333

11) 마이클 만-툼 톨스(2017). 누가 왜 기후변화를 부정하는가, 미래인

12) 임산부 입덧 방지약인 탈리도마이드 사건을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312325005&code=940100

13) 여성환경연대 <http://ecofem.or.kr/introduction/about-us/>

14)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3669619>

여성환경연대는 이슈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환경호르몬으로부터 가장 취약한 대상인 모자건강을 긴밀하게 연결함으로써 단체 정체성을 명확히 하였다. 여성환경연대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환경·생태문제와 여성 문제가 경제성장기부터 민주화시기에 이르기까지 부의 축적과 발전에만 몰입된 결과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문제의 핵심이 ‘평등’과 ‘속도’에 있다고 보고 ‘자연과 인간, 여성과 남성,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건강하고 평등한 세상,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자연의 속도에 맞는 느리고 단순한 삶.’을 추구하며 작고 소박한 일상으로부터 녹색의 대안을 실천하는’ 것을 주요 행동지침으로 삼고 있다. 즉, 여성환경연대의 정체성을 한 마디로 응축하면 ‘실천하는 에코페미니스트’라고 할 수 있으며 지난 18년 동안 이와 관련된 많은 성과들을 이루어냈다. 아카데미하게는 생태주의와 여성주의를 주제로 한 포럼과 에코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참여인원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2016년 에코컨퍼런스의 경우 참여희망자가 400명이 넘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환경연대의 캠페인은 시민단체 내에서도 독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를 들면 핑크리본 캠페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유방암 캠페인¹⁵⁾도 대한암협회와 한국유방암학회가 하면 ‘유방암의식향상캠페인’이지만 여성환경연대가 하면 “Stop 유해화학물질, Down Down 유방암” 그린리본 캠페인이 된다. 캠페인 방식도 전문화 되어 이미 10년 전부터 전문분석기관이나 대학과 연계하여 여성들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타민음료, 커피전문점의 일회용컵, 학교급식의 통조림 등에서 환경호르몬을 찾아내고 검출결과를 대중들과 공유하며 실질적으로 노출을 줄이는 캠페인을 펼치는 ‘시민과학’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회용 컵에서 과불화화합물을 검출한 결과를 통해 개인용컵을 가지고 다니자는 캠페인을 하거나 자외선차단제에서 환경호르몬을 검출하고 자외선차단제가 들어있지 않은 화장품을 직접 만들거나 모자쓰기 등 대안 실천방안 캠페인을 펼치는 식이다. 이번 생리대에서 유해물질을 분석한 것은 이미 10년 전부터 면생리대 만들기 캠페인을 펼쳐오면서 고민해 오던 것이 과학적인 분석방법에 대한 선행연구를 찾아내면서 실행된 것이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제 3세계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댓가가 돌아가게 하는 공정무역¹⁶⁾과 음식을 매개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이야기하고, 안심하면서 사고 파는 도시형 농부시장 마르쉐 @ 17) 처럼 여성환경운동을 시민들의 생활 속으로 파고 들어 파격적인 도시형 밀착시민운동방식으로 실행하고 있기도 하다. 이 밖에도 여성환경연대의 활동은 여성 스스로 깨어나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젠더 관점의 여성활동가를 길러내는 교육프로그램과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생태체험 프로그램, 각종 대안용품 만들기 등 여성의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지지받지 못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단체 활동으로 생산된 모든 연구자료 및 보고서 등은 인터넷을 통해 모든 것을 공유¹⁸⁾하고 있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표2_여성환경연대의 주요 활동]

사업 유형	사업 내용
교육프로그램	여성환경활동가, 여성생태안내자 , 환경건강관리사 양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여성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생태프로그램	가족생태프로그램 ‘봄 야생화 기행’ 등
포럼 및 컨퍼런스	여성환경국제회의 “환경과 여성건강”(2007)

15) 대한암협회 http://www.thecancer.co.kr/bbs/board.php?bo_table=health&wr_id=5

16) 공정무역 ‘그루’ <http://www.fairtradegru.com/shop/main/index.php>

17) 마르쉐 <http://marcheat.net/>

18) <https://www.slideshare.net/ecofem/2016-62177899>

	에코 컨퍼런스(2013~) 에코 페미니즘 학교(2014~)
연구 조사 사업	영유아 대상 백신의 중금속 함유실태 및 체내 노출량 추정 연구 굿바이 아토피 사업 - 서울지역 5개학교 친환경급식, 검진, 교육, 텃밭프로그램 삼성중공업/허베이스피리트호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주민건강피해모니터링,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영향조사 유방암 환경요인 연구사업(1.2차) 자외선 차단제 유해성분 모니터링
실천 프로그램	에코걸 프로젝트 (대안화장품, 대안 생리대 만들기 워크숍) (2007~) 나는 달 프로젝트(캄보디아 청소년들에게 대안생리대 전달) 마르쉐@혜화(2012~) 공정무역 (2006~)
캠페인	비타민음료에서 벤젠 검출(2006) 커피전문점 일회용컵에서 '과불화화합물 검출(2013) With a Cup 캠페인(2010~) 유방암과 안전한 화장품 그린리본 캠페인 "Stop 유해화학물질, Down Down 유방암"(2007~) 제로제로 대사증후군 캠페인 미세플라스틱캠페인('FACE to FISH' 서포터즈 '찾는바다')(2015~)

최근의 가장 큰 성과는 '미세플라스틱 캠페인'19)으로 2016년 55개 화장품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2017년 7월부터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사용에 대한 자율규약이 적용되어 화장품 뿐 아니라 치약에서도 사용중지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즉 '여성에게 안전한 것은 모두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출처 : 여성환경연대

19) 미세플라스틱은 바다가재 소화관, 임어패류 등에서 점점 많은 양의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어 이들을 먹는 동물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인간도 수산물 섭취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에 대해 유네스코에서도 2010년 신규 이슈로 지정한 바 있다. 화장품에 사용되는 미세플라스틱은 사용감이 우수하고 다른 물질과의 안정성과 낮은 단가 때문에 업계에서 사용중지에 대해 반발해 왔지만 독성결과는 아직도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고 있다.

3. 생리대 안전성 논란을 둘러싼 쟁점 분석

생리대 유해물질 분석의 전 과정 공개

여성환경연대는 2016년 7월 ‘월경수다회’를 열고 참여자를 모집해 월경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편견과 어려움에 대해 일반 시민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월경통(생리통)과 생리대에 얽힌 남모름 ‘설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터져 나왔고 면생리대를 사용하고 난 뒤 생리통증에 변화가 있었다는 경험들을 나눌 수 있었다. 사실 면생리대 사용이후 월경통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인터넷 카페와 SNS등을 통해 많이 알려진 이야기였다. 하지만 원인만은 추정할 길이 없었을 뿐이었다. 어느 광고처럼 ‘생리대 여자한테 참 ~ 안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 였다.

생리대가 여성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히려 2016년 6월 30일자로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생리대의 안전성 심사규정을 더 간소화해 버렸다. 이는 전성분공개를 요구해 온 여성단체들의 요구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간소화 한 이유에 대해서 식약처는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 처리 절차의 간소화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의 면제 범위를 확대한 것은 규제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해서’라고 명시했다. 지금은 잘 알려져 있지만 식약처가 생리대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네 가지,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산·알카리 여부, 색소에 불과하다. 이것을 더 간소화 하겠다고 하니 여성단체들은 업체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면생리대를 사용하고 난 뒤 월경통 등에 변화가 있다는 것은 생리대에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주요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해 주는 대목이다. 분석을 하려해도 명확하게 잡히는 것이 없었다. 표백에 사용되는 염소로 인한 다이옥신 논란과 포름알데히드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 이러한 물질들이 생리대에서 발견했다는 기록은 없다. 생리대의 안전성에 의심을 품은 것은 우리나라의 일만은 아니다. 그러던 중 2014년 미국의 시민단체인 WVE(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하지만 국내 시민단체들은 동일한 분석을 추진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분석을 할 전문가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SBS스페셜 ‘바디버든’²⁰⁾ 다큐멘터리 제작 팀은 자궁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을 앞두고 8주간 동안 임상실험자들에게 제공할 제품들의 분석 자료를 모으면서 WVE의 자료를 검토하게 되었다. 임상실험 참여자들에게는 체내 유해물질의 총량인 바디버든을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로 면생리대를 사용하게 하고 그 이유로 일회용 생리대의 유해물질 분석결과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다큐멘터리 제작팀은 여성환경연대팀과 함께 일회용생리대 분석을 추진하기로 하고 면생리대를 만드는 캠페인에 출연자 중 일부를 참여하게 하고 촬영도 진행하기로 했다. 분석 전문가는 제작팀에서 물색하고 분석비는 여성환경연대가 시민편당으로 모은 비용 중 일부로 충당하기로 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련 분석 경험이 있거나 논문 집필자가 1차 대상이었다. WVE의 보고서를 전달하고 분석 가능성을 타진했다. 주로 환경 대기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분석하는 연구실이었다. 그러나 분석장비는 있지만 생리대에서 방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포집할 실험도구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해야 하는데 비용도 시간도 만만치 않아 어렵다는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다. 다큐멘터리 제작 자문 교수들을 통해 추천을 받아 이메일을 보내고 또다시 추천을 받아 연락을 취하는 지리한 과정을 거치면서 강원대학교의 김만구 교수와 가까스로 연락이 닿은 것은 9월2일, 그 마저도 김만구 연구팀이 진행하고 있던 실험과 보고서 작성 등으로 분석가능성 타진에 대한 답변은 당장 받을 수 없었다. 그렇게 시간만 보내다가 9월23일에 가서야 간신히 실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강원대에는 골칫거리였던 ‘실험도구’인 다양한 크기의 헤드 스페이스 컨테이너(보통 밀폐 채

20) 바디버든(bodyburden)은 인체 내 유해물질의 총량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SBS스페셜 ‘바디버든’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McGraw-Hill Concise Dictionary of Modern Medicine. © 2002 by The McGraw-Hill Companies, Inc.

임버)와 분석장비가 모두 완비되어 있었다! 자! 이제 어떤 생리대를 분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시점까지 분석을 모두 완료해야 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시험을 모두 완료할 수 있는 수준의 생리대 수량은 최종 생리대 10종과 팬티라이너 10종으로 결정되었다. 국회의원실을 통해 전달받은 식약처의 2015년 브랜드별 매출 순위 자료를 통해 제조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1종씩 선정하고 보니 매출순위 1위, 2위, 4위, 8위 업체의 생리대가 최종 선정되었다. 팬티라이너는 생리대와 함께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매출순위와 관련된 자료가 없어 생리대 매출순위별 1,2위 업체의 제품 중 향을 기준으로 무향/향 제품을 각 1종씩 선택하고 대형마트의 판매원에게 최근 가장 판매량이 높은 제품을 추천받아 한방팬티라이너 1종을 추가했다. 임상실험 참여자들에게 배포될 면생리대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분석결과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전 제품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견되었지만 미국 WVE 분석결과보다는 낮았지만 우리나라 생리대에서도 생식독성물질과 발암물질이 발견되었고 생리대보다 팬티라이너에서 더 많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언론의 반응이었다. 생리대 분석 결과는 2017년 2월 26일 <SBS스페셜 바디버튼 1부 자궁의 경고>편을 통해 방송되었고 3월21일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그러나 제대로 기사화 되지 못하였다. 당시 시국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3월10일) 즈음으로 세간의 이목이 모두 탄핵에 집중된 탓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다가 8월3일 한 신문에서 '21)특정 생리대를 사용하고 난 뒤 생리일이 짧아지거나 생리통증이 심해진다'는 이야기들이 입소문을 타고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를 냈다. 생리하기가 싫거나 귀찮으면 '릴리안 생리대를 쓰라'는 것이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돌았다고 한다. 8월9일 또 다른 언론에서 유사한 내용의 기사²²⁾가 나왔다. 그리고 2주 정도가 지난 8월 19일부터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릴리안 제조사인 깨끗한 나라가 한국소비자원에 분석의뢰를 했다는 기사들이었다. 생리대의 유해물질에 대한 의문이 이미 SNS에 퍼진 상황이었고 당연히 3월에 공개되었던 유해물질 분석실험결과도 재소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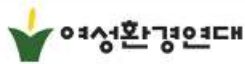
당초 여성환경연대는 2월26일 SBS스페셜이 방송된 후 기자회견을 열고 분석대상 브랜드와 업체를 모두 공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분석검출한 물질이 생리대 안전기준 물질이 아니어서 검출되었다 하더라도 법

21) 일요신문 http://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61880

22)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091154002&code=900303

생리대 바꿨더니 생리량이 준다?

를위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리콜조치 등이 안전 대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당초 목표가 생리대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한 상황에서 식약처가 안전검사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리 간소화를 추진하자 이에 반발하여 강도 높은 안전관리와 전성분 표시제를 촉구하기 위해서였으므로 문제제기보다는 문제해결로 방향을 잡고 업체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던 차였다. 정책과 생산구조가 변하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8월이 되어 릴리안 생리대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너도나도 밝히면서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한 일간지 23)기자가 논란이 된 릴리안 생리대와 생리대유해물질 검출 대상 중 유해물질 농도가 가장 높았던 제품을 연결하여 기사를 낸 8월 19일 이후 릴리안 생리대가 집중 주목받기 시작했다.



소개 주요사업 공지사항 활동소식 자료마당 교육문의 후원하기
 about activity notice news archive education donate

109 SEARCH RESULTS FOR 생리대

- [공지]일회용 생리대 "릴리안" 사용자 피해 사례 제보를 받습니다!
2017-08-22 ♀ 여성환경연대 댓글 없음
- [성명서]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건 관련 식약처에 대한 여성환경연대의 요구
2017-08-17 ♀ 환경건강팀팀장 고금숙 댓글 없음
- 생리대 전성분표기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합니다!
2017-05-26 ♀ 여성환경연대 댓글 없음
- [보도자료/성명서] 세계 필경의 날, 안전한 생리대는 여성인권이다
2017-05-26 ♀ 환경건강팀팀장 고금숙 댓글 없음
- 생리대에 들어있는 성분을 아는 것은 우리의 권리!
2017-05-21 ♀ 환경건강팀팀장 고금숙 댓글 없음
- 2017 서울환경영화제 "여성과 지구 건강을 위한 안전한 생리대 부스"
2017-05-15 ♀ 여성환경연대 댓글 없음
- 2017 지구의 날 "지구하자" 지구와 여성건강을 위한 생리대 부스
2017-04-17 ♀ 환경건강팀팀장 고금숙 댓글 없음
- 생리대 전성분표시제, 서명합니다.:)
2017-04-06 ♀ 환경건강팀팀장 고금숙 댓글 없음
- 생리대(필경용품) 검출시험 결과에 대한 입장
2017-03-22 ♀ 환경건강팀팀장 고금숙 댓글 2 개
- [카드뉴스] 생리대가 자궁에게 건네는 경고
2017-03-02 ♀ 환경건강팀팀장 고금숙 댓글 없음



Search
 SEARCH

출처 : '생리대'를 키워드로 한 여성환경연대 홈페이지 캡처

여성환경연대는 유해물질 검출이후 3월21일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난 뒤에도 꾸준히 그간 지속적으로 펼쳐오던 '생리대전성분표시제'에 집중했다. 그러나 언론에 릴리안생리대 피해 관련 이슈가 크게 보도된 직후 시도한 '일회용생리대 "릴리안" 사용자 피해 사례 제보를 받습니다. 는 분석한 다른 제품명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브랜드 피해사례를 수집한 것이어서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여성환경연대 입장에서는 SNS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피해 사례가 회자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수렴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한 법무법인이 소송인을 모으고 있는 것이 문제해결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

23) 조선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06254>

단에서 전격적으로 진행한 것이었다.

현대사회에서는 독성 화학 물질에 대한 두려움과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한번 사건이 발생하면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곤 한다. 기름을 붓는 건 어김없이 미디어다. 미디어가 불안을 증폭시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증상의 원인을 찾기도 어려워진다. 정책 당국의 시기적절한 대응이 꼭 필요한 이유다.

눈과 귀를 흐리게 하는데 일조를 한 것은 언론이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생리대 유해물질 사건의 핵심은 생리대에서 나와서는 안 될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것이고 불행하게도 그 유해물질에 발암성 물질이나 생식독성물질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생리대를 사용해 온 수천 명의 여성들이 일제히 자신의 몸을 증거로 유사한 증상들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일개 시민단체가 왜 생리대를 분석하기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야말로 언론이 주목해야 할 진짜 [단독]‘기사거리’가 아니었을까? 식약처에서는 생리대에서 발견된 물질 위주로 분석을 한다고 하지만 아프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인데 왜 문제해결의 시작을 ‘사람’에서부터 하지 못하는지, 사람들은 언론에서 사람의 문제를 발견하고, 사람의 문제를 이야기하기를 원하며 그런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길 바라고 있다.

이번 생리대 유해물질 사건에 대해 언론은 사람들에게 위기상황을 알리는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위기를 증폭시키는 것에만 몰두했을 뿐 해결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미 수개월 전에 문제를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업과 식약처도 문제지만 이를 대하는 언론의 태도는 적절했는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시한폭탄은 종종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등장한다. 시한폭탄의 시계를 작동시키는 것은 늘 악당이다. 악당에 맞서는 주인공은 예정된 시간 안에 악당을 제압하고 몇 초 남기지 않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시한폭탄의 시간을 멈추거나 피해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터지게 하고 당당히 ‘영웅’이 된다.

8월 내내 대한민국은 유해물질로 시끄러웠다. 매일 식탁에 오르는 식재료인 달걀과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단 한 사람도 비켜갈 수 없는 월경에 사용하는 필수품, 생리대에 살충제와 발암물질, 생식독성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사실을 ‘확인’한 것은 시민단체 (살충제 달걀은 ‘한국소비자연맹’, 생리대 유해물질은 여성환경연대)였지만 이러한 ‘사실’을 온 국민에게 ‘알린 것’은 ‘언론’이었다. ‘위기의 대한민국’이라는 시한폭탄에 불을 붙였다는 것을 알린 것은 시민단체였지만 불 붙은 폭탄을 사람들 속으로 던진 건 언론이었다. 아래 자료는 한 포털 사이트에서 생리대와 [단독]이라는 키워드로 찾은 기사들이다. 이토록 [단독]기사가 많은 이슈가 최근 또 있었을까 싶다. 살짝만 보더라도 기자들이 얼마나 이 이슈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는지 알 수 있다.

[단독]발암물질까지 방출... 안전 찝찝한 생리대 2017.03.22.

[단독] 안 그래도 불안한데...대형마트에 사용기한 지난 생리대 2017.08.30.

[단독] 생리대 유해성 검사 ‘날림’이었다 2017.08.31.

[단독]WHO "생리대접착제, '非발암성' 의미 아냐"...'SBC' 유해논란 가중

[단독] 생리대 문제 제기 단체 소셜펀딩 없었다 2017.08.29.

[단독] 유해성 논란 릴리안 생리대, 휘발성화합물질 방출 1위

[단독]한쪽은 면세 한쪽은 과세...식약처, 생리대 분류기준 '모호'

[단독] 남성인지 묻기도...식약처, '생리대 관련' 황당 질문 2017.09.05.

출처 : 포털 사이트 발췌

뜨거운 관심만큼 내용도 선정적이다. 어떤 기사는 머릿기사와 내용이 연관성 없이 따로 따로 인 것도 있다. 선정적일수록 흥분한 댓글들도 주렁주렁 달린다. 선정적인 기사일지언정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면 언론의 환경감시기능에 충실한 기사라고 박수를 쳐 줄 일이건만 문제의 본질과는 멀어도 한참 거리가 먼 기사가 적지 않게 눈에 띈다. 또 전문가 인터뷰를 곁들여 심지만 이 전문가 말이 다르고 저 전문가 말이 다르다.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한 전문가가 누구냐에 따라 같은 물질도 안전한 것이 되기도 하고 위험한 것이 되기도 한다. 소비자 단체와 시민단체도 구분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 과학커뮤니케이터를 자처하면서도 공개된 분석 내용조차 제대로 모른 채 토론회에 나와 생리대에서 발견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폄하하는 전문가도 있다. 정보원이 누구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은 객관성이 기본인 언론의 심각한 책임 방기다. 우리 사회는 전 세계 유례없는 불산누출사건, 가슴기 살균제 사건을 겪으며 화학물질로 인해 생태계와 우리의 생명이 어떤 피해를 겪을 수 있는지 똑똑히 경험했다. 화학물질은 우리 생활에 매우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는 언제든지 가슴기, 생리대를 넘어 생활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 그런데도 화학물질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한 준비없는 기자들이 관련 기사를 작성하고 그리 많지도 않은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련 독성전문가들에 대해 파악조차 못한 채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유감이다. 불붙은 시한폭탄을 시민들을 향해 던지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생리대 관련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한 8월19일부터 9월까지 언론은 [단독] 뉴스를 쏟아내며 취재경쟁을 벌였다. 그러나 기사에는 간신히 공론화장으로 나온 우리 사회의 여성 건강에 대한 안전 문제나 사람을 아프게 하는 유해물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가 아닌 '의혹'이 주된 관심사였다.

데이비드 마이클스 교수가 쓴 책 '의심은 그들의 상품이다 : Doubt is their product'(우리나라에서는 '청부과학'이라는 제목으로 출간, 2009)에는 산업계가 어떻게 과학의 객관성을 무기로 정당한 과학적 증거를 흔들어 불확실성을 조장했는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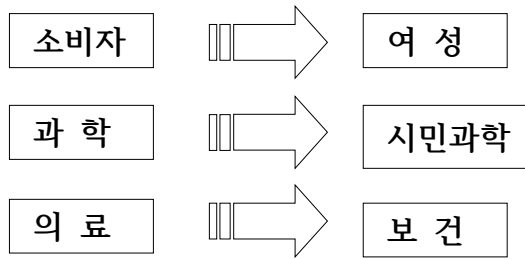
논란이 시작된 초기 뉴스 기사를 통해 생리대 유해물질 사건의 쟁점을 살펴보면 '사야 하는데 살 수 있는 안전한 생리대가 없다는' '소비자문제와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해서 발암물질과 생식독성물질이 검출되어 나오긴 했는데 그 분석방법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과학불신'문제, 그리고 생리대 때문에 '잘 하던 생리가 양이 줄고 생리일수가 짧아지며 생리통이 심해지고 더러는 심각한 자궁질환까지 겪게 되었다는' '의료' 문제를 핵심 의제로 좁힐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언론이 쟁점을 잘못 짚은 것이다. 이미 지난해 4월부터 여성커뮤니티에서는 릴리안 브랜드가 특정되며 생리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었고 깨끗한 나라도 이를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었고, 이런 태도는 유해물질 검출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도 8월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날 때까지 이어져왔다.

ISO 국제 공인 시험방법으로 분석했음에도 이미 식약처에 통보했음에도 식약처 역시 8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때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 주체가 무관심으로 일관한 사이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다. 이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다. 선택이 아닌 숙명에 의해 월경을 매달 치러내야 하는 여성들의 절규이다.

이 땅에 일회용 생리대가 시판되기 시작한 이래 이토록 공개적으로 여성의 월경과 월경혈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을까? 그토록 오랫동안 생리통과 생리대로 인한 불편함과 어려움을 호소하여 왔지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아무도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았다. 그 점 하나로도 여성환경연대의 이번 문제제기는 박수 받아 마땅하다. 여성들의 월경과 관련된 문제는 그동안 적지 않았음에도 늘 해결해야 할 주체는 개인이었던 것이다.

생리대 유해물질 사건은 소비자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문제이고,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과학'의 문제이기도 하며, 의료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의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옳다. 인류역사가 과학 발전이라는 토대 위에 지금까지 성장해 온 것은 과학의 목적이 인류의 진보에 있기 때문이다.

생리대 유해물질 사건의 핵심



많은 학자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불확실성에 기인한 현대사회의 위험을 규명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시민사회는 과학전문가에게 위탁한 과학 활동을 통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과학 활동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고 그에 대한 입증 역시 과학이 해야 할 것이다.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증상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자궁질환의 대부분은 원인불명이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치료행위만 반복되는 것에 대해 원인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면 사전주의원칙에 의해 원인을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것이 상식선에서 요구하는 과학과 의학에 대한 물음이고 기대다. 병을 고치는 의료행위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병을 예방하고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 달라는 보건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본질은 온데 간데 없이 ‘생리대 유해물질 사건’은 언론에 의해 철저하게 소비자의 시선, 과학기술주의적인 시선으로만 다루어져 온 부분이 있다. 특히 깨끗한 나라²⁴⁾의 릴리안 생리대가 유해물질이 가장 많이 나온 제품이었다는 것이 언론에 의해 드러난 후부터는 ‘의혹’프레임이 단단하게 자리 잡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가장 큰 의혹은 다국적기업이 토종기업을 망하게 한다는 프레임이다. 그것에 시민단체가 동원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혹은 심지어 오는 10월에 있을 국회 보건복지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²⁵⁾ 주요 안건 중의 하나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한 보수 야당의원이 ‘여성환경연대와 유한킴벌리 유착 관계’를 명백하게 해야 한다며 안건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생리대의 유해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여성환경연대는 의혹해명을 위한 증인으로 세워지게 된다고 한다. 생리대가 이젠 정치가 되었다. 이것이 ‘보수야당의 시민단체 죽이기’ 혹은 ‘재벌기업의 시민단체죽이기’(깨끗한 나라의 회장 부인은 LG 창업자의 막내딸이다)가 될지 의혹을 해소하는 자리가 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이러한 의혹을 키운 것은 언론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유한킴벌리와 유착설을 제기한 것도 언론이었으며 ‘날림’실험실 수준’등의 선정적인 머릿기사로 정당한 과학적 증거를 비과학적인 결과로 폄하한 것도 언론이다. 분석결과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토종기업죽이기 프레임이 덧씌워지는 등 언론은 의혹을 생산하고 유포하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보건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시민과 전문가가 담당하던 감시와 문제제기 역할이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²⁶⁾도 나왔지만 언론종사자들에게 있어 ‘의혹’은 가장 강력한 베스트셀러이고 머스트해브 아이템이다. 마이클 교수의 청부과학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9월에 이르러서는 문제의 주체인 여성과 소비자도 사라지고 기업유착 의혹에 연관하여 분석한 과학자와 문제제기한 시민(단체)만 남았다. 일회용생리대의 안전성 문제는 사라지고 ‘왜 릴리안만 가지고 그래?’만 남았다. 생리대의 유해물질은 사라지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인체 위해성 의혹만 남았다

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3/2017080301515.html
 [재계는 지금] 매출 1조 앞둔 깨끗한나라...일은 딸이, 승계는 아들이?
 25) 여성신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10&aid=0000061806>
 국회는 생리대 안정성보다 시민단체-기업 유착 의혹이 우선인가?
 26) 동아사이언스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19648>

그러나 여성환경연대는 아래 사진에서도 보듯이 릴리안만 문제 삼지 않았다.



유한킴벌리 유착의혹

2004년, 미 존스홉킨스대학의 레스터 샬러먼 교수가 32개국 시민단체들의 재정 수입원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각국 시민단체 예산 가운데 정부 지원이 차지하는 몫은 평균 35%, 한국 시민단체 평균은 24%였다. 대부분의 시민단체는 회원들의 회비와 기업의 후원기금, 정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민단체 기금이 전부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중 시민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회비를 내는 분이 얼마나 될까? 회원이 많은 단체일수록 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정부대신 공공 서비스를 행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다양한 기금 지원은 시민단체 활동이 활발한 서구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분석대상기업의 임원이 시민단체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오해의 여지가 있다. 비록 1년에 4회 개최되고 1시간 반 남짓 이루어지는 회의에 불과하지만 오해의 불씨를 남긴 것은 실수다.

이참에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사무처장의 입장을 전해보자면 생리대 유해물질 분석 결과를 여성문제로 규정하고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이슈를 풀어나가려고 했으며 그 이유로는 시민단체 내에서도 여성문제는 지엽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페미니즘이 메갈리즘으로 오인받고 있는 상황을 정면으로 타파하려고 했다고 한다. 이번 '생리대유해물질사건'을 겪으며 전담 언론대응팀의 부재로 인한 공백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한다.

내친 김에 시민사회의 반응도 대신 전해보고자 한다.

“너무들 열심히는 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은 모른다”

“예전에는 언론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SNS 중심으로 옮겨졌다. 동영상,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지만 예전보다는 대안언론이 있어 전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편은 있는 셈이지만 소통에는 정보도 방법도 능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시민단체와 PR, 위기전문가 그룹이 연계할 수 있으면 좋죠, 상시적이 어렵다면 특정 이슈에라도 결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단체와 PR 전문가의 결합의 필요성

이제는 PR 전문가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질 때

기업과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과 시민단체의 사이의 교량역할, 매개 역할, 중재 역할을 할 당사자가 절실한 시점

우리나라의 시민단체 중 언론대응만을 위한 전담팀이나 활동가를 두고 있는 곳은 없다. 전국적인 규모의

제법 큰 시민단체이건 중소단위의 시민단체이건 이러한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현재의 시민단체는 특정 이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정책입안까지 전략을 짜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위기상황까지 염두에 둘 겨를도 재원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디어홍보 혹은 시민소통 팀이 있는 단체도 있지만 대부분 SNS나 미디어 콘텐츠제작에 힘을 쏟고 있는 형편이다.

생리대 유해물질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듯 앞으로 생활화학물질과 관련된 '위기'상황은 소비자, 과학적 증거와 위해성과 안전성 여부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명확하게 규명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고 이런 이유로 '중재'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 도래하였다. 하지만 이번 생리대 유해물질 사건에서도 위기전문가나 위기전문가의 활약은 찾아볼 수 없다. 우리 사회 위기전문가는 현재 존재감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기사들 중에는 "위기 상황에 대해 정부가 미리 대응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쌓이고 있다며 앞으로 질병이나 건강에 대한 이슈가 터질 때 정부가 위기관리 시스템²⁷⁾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도 전한다. 새로운 위기대응, 위기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니 위기전문가들의 약진을 기대한다.

에드워드 버네이즈가 '클라이언트의 사적인 이익과 사회의 공적인 이익을 조화시키는 것이 PR 전문가가 하는 일'이라 설파한 이해 시대는 바뀌었지만 PR의 기본은 여전히 '중재'와 '조화'일 것이다. 주요 클라이언트는 기업이나 정부가 될 것이고 이들을 공격하는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시민 혹은 시민단체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기회에 PR전문가들이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시민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최대 모임체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있고 서울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NPO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위기소통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대환영이다. 언젠고 협상테이블에서 만날 그 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사람들이 바로 PR위기 전문가'들이 되기를 희망한다. //

참고문헌

- 김록호(1998). 내분비교란물질(환경호르몬)과 인류의 미래. 대한의사협회지, 41, 1039-1047
김록호(1999). 환경호르몬: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한양의대학술지, 19(2), 15-21
김보람(2016). 생리대,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으로 바라봐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래리 타이(Larry Tye), 송기인·김현희·이종혁 옮김, [여론을 만든 사람, 에드워드 버네이즈: 'PR의 아버지'는 PR을 어떻게 만들었나?](커뮤니케이션북스, 1998/2004), 175-176쪽.

UNEP/WHO, 2013b. World Health Organization,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WHO-UNEP). In: Bergman, A., Heindel, J.J., Jobling, S., Kidd, K.A., Zoeller, R.T. (Eds.), State of the Science of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http://www.who.int/ceh/publications/endocrine/en/index.html>.

27) 국민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5&aid=0001030368>